

대승의 상락아정

▶ 1. 모순되는 두 가지 인식의 배경

如人以手指月示人 (여인이수지월시인) 누가 손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이에게 보인다면
彼人因指當應看月 (피인인지당응간월) 그 사람은 손가락을 따라 당연히 달을 보아야 한다
若復觀指以爲月體 (약부관지이위월체) 만약 그가 손가락을 보고 그것이 달의 본체라고 여
긴다면

此人豈唯亡失月輪 (차인기유망실월륜) 그 사람은 어찌 둥근 달만 잃어버리겠는가
亦亡其指 (역망기지) 손가락 역시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 見月忘指(견월망지)는 원래 불도를 닦는 사람이 불경에 쓰여있는 글자에만 집착하면 불경이 의미하는 부처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경구(警句)를 의미한다.
- 대학(大學) 7장의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과도 비슷한 의미이다.
- 소승과 대승 역시 견월망지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체계

「善男子 諸佛世尊語有二種 (선남자 제불세존어유이종) 선남자야! 제불세존의 언
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一者世語, 二者出世語。 (일자세어 이자출세어) 하나는 세간어[世語]요, 둘은
출세간어[出世語]니라.

善男子 如來爲諸聲聞緣覺說於世語, (선남자 여래위제성문연각설어세어) 선남
자야! 여래는 모든 성문과 연각들을 위해서는 세간어로 말하고,
爲諸菩薩說出世語。 (위제보살설출세어)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출세간어를
말하느니라.

善男子是諸大衆復有二種 (선남자 시제대중부유이종) 선남자야! 여기 모든 대중
들도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一者求小乘(일자구소승) 한 가지는 소승을 구하는 자이며
二者求大乘 (이자구대승) 둘은 대승을 구하는 자이니라.

我於昔日波羅捺城 (아어석일파라내성) 나는 옛날 바라내성에서는
爲諸聲聞轉于法輪 (위제성문전우법륜)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소승)법륜을 굴렸으나
今始於此拘尸那城 (금시어차구시내성) 지금에는 여기 구시나(拘尸那)성에서는
爲諸菩薩轉大法輪 (위제보살전대법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의 법륜을 굴린다.

復次善男子 復有二人 (부차선남자 부유이인) 그리고 또 선남자여 게다가 사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中根上根 (중근, 상근) 중근기를 가진자와 상근기를 가진자 이니라
爲中根人 於波羅捺轉於法輪 (위중근인 어파라내전어법륜) 중근기를 가진자를 위하
여 바라내성에서는 법륜을 굴렸는데

爲上根人 人中象王 迦葉菩薩等(위상근인 인증상왕 가섭보살등) 상근기를 가진자 즉
사람 중에 코끼리왕인 가섭보살 등과 같은 자를 위해서

今於此間拘尸那城轉大法輪 (금어차간구시나성전대법륜) 지금 여기 구시나성에서는
대승법륜을 굴린다.

善男子 極下根者(선남자 극하근자) 선남자여 지극히 낮은 근기[下根]인 자에게는
如來終不爲轉法輪(여래종불위전법륜) 여래는 마침내 그를 위하여 법륜을 굴리지 않나니,
極下根者即一闍提(극하근자즉일천제) 극도의 하근기인 자가 곧 일천제(一闍提)이니라.

- 『대반열반경』 13권

- 여기서 소승과. 대승의 어법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여기서 세간 말은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로 세계를 바라보는 장교藏敎의 어법을 말한다. 이는 입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 출세간 말은 고차원으로 세계를 일미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원교圓敎의 어법을 말한다. 일미 평등의 인식은 세계를 파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여기서 세계는 하나의 장으로 인식된다.
- 장교는 가시세계에 익숙한, 근기가 낮고 공부가 덜 된 대중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이고, 원교는 공부가 무르익어 원음圓音 그대로 표현해도 알아 들을 수 있는 수행자들을 위한 진실의 가르침이다.

▶ 2. 열반의 차원이 아니면 상락아정을 말할 수 없다.

時諸比丘卽白佛言 (시제비구즉백불언)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니
世尊, 我等不但修無我想(세존, 아등부단수무아상)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亦更修習其餘諸想(역갱수습기여제상) 그 밖에 다른 생각도 익혀서 닦으니
所謂苦想 無常想 無我想(소위고상무상상무아상) 이른바,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입니다.

世尊 譬如人醉 其心惛眩(세존 비여인취 기심면현) 세존이시여,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마음이 현란하여

見諸山河, 石壁, 草木, 宮殿, 屋舍, 日月星辰皆悉迴轉(견제산하, 석벽, 초목, 궁전, 옥사, 일월성신개실회전) 모든 산이나 강물이나 성곽 · 궁전 · 해 · 달 · 별 따위를 볼 때에 그것들이 모두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世尊 若有不修苦 無常想, 無我等想 (세존 약유불수고, 무상무아등상) 세존이시여, 만일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을 닦지 않는

如是之人不名爲聖 (여시지인불명위성) 이런 사람은 거룩한 이[聖者]라고 할 수 없으며

多諸放逸 流轉生死 (다제방일 류전생사) 많은 이가 모두 방일하여 생사를 헤매는 탓입니다.

世尊 以是因緣 我等善修如是諸想 (세존 이시인연 아등선수여시제상) 세존이시여, 그러한 인연으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닦고 있습니다.

爾時 佛告諸比丘 (이시 불고제시구) 이때에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諦聽! 諦聽! 汝向所引醉人喩者 但知文字 未達其義 (제청 제청 여향소인취인유자 단지문자 미달기의) 아주 잘 들어야 한다. 너희가 인용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단지 문자적 의미만 아는 것이지, 아직 그것의 이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何等爲義 (하등위의) 어떤 것들이 그 이치가 될 수 있는가?

如彼醉人見上日月 實非迴轉 生迴轉想 (여피취인견상일월 실비회전 생회전상) 그 취한 사람은 해와 달을 우러러 보면서 실제로는 돌지 않는 것을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衆生亦爾 爲諸煩惱 無明所覆 生顛倒心 (중생역이 위제번뇌무명소복 생전도심) 중생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서 뒤집어지는 바가 되어 뒤바뀐 마음이 생긴다.

我計無我(아계무아) 常計無常(상계무상) 淨計不淨(정계부정) 樂計爲苦(락계위고) 나에게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다.

以爲煩惱之所覆故雖生此想 (이위번뇌지소복고 수생차상) 번뇌에 가려져서 뒤바뀐 바 때문에 비록 이러한 상이 생긴 것이니

不達其義 如彼醉人於非轉處而生轉想 (부달기의 여피취인어비전처이생전상)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我者卽是佛義 (아자즉시불의) 나란 것은 곧 부처라는 뜻이고

常者是法身義 (상자시법신의)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라는 뜻이고

樂者是涅槃義 (락자시열반의)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라는 뜻이고

淨者是法義 (정자시법의)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다.

汝等比丘云何而言 (여등비구운하이언)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有我想者憍慢貢高流轉生死 (유아상자교만공고유전생사)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를 헤맨다고 하는가?

汝等若言我亦修習無常, 苦, 無我等想 (여등약언아역수습무상, 고, 무아등상) 너희들이 만약 우리도 무상, 고, 무아 등의 생각들을 닦는다고 말한다면

是三種修無有實義 (시삼종수무유실의) 이 세 가지를 닦는다는 것은 진실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我今當說勝三修法 (아금당설승삼수법) 나는 지금 당장 세 가지 뛰어난 수행법을 말하겠다.

苦者計樂, 樂者計苦, 是顛倒法 (고자계락, 락자계고, 시전도법) 괴로움에 대해서는 즐겁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는데, 즐거운 것에 대해서는 괴롭다는 생각을 꾀하는 것이 전도된 법이며,

無常計常, 常計無常, 是顛倒法 (무상계상, 상계무상, 시전도법) 무상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야하며, 항상한 것에 대해서는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전도된 법이다.

無我計我, 我計無我, 是顛倒法 (무아계아, 아계무아, 시전도법)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전도된 법이다.

不淨計淨, 淨計不淨, 是顛倒法 (부정계정, 정계부정, 시전도법)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고,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전도된 법이다.

有如是等四顛倒法, 是人不知正修諸法. (유여시등사전도법, 시인부지정수제법) 이와 같이 네 가지 전도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법을 올바르게 닦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汝諸比丘於苦法中生於樂想, (여제비구어고법중생어낙상) 너희 모든 비구들이 괴로운 법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於無常中生於常想, (어무상중생어상상) 무상함 속에서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於無我中生於我想, (어무아중생어아상)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고

於不淨中生於淨想. (어부정중생어정생) 부정함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야 한다.

世間亦有常樂我淨, (세간역유상락아정)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出世亦有常樂我淨 (출세역유상락아정) 출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지만,

世間法者有字無義, 出世間者有字有義 (세간법자유자무의, 출세간자유자유의)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며,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다.

何以故 世間之法有四顛倒故, 不知義. (하이고? 세간지법유사전도고, 부지의.)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네 가지 전도된 것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

所以者何? 有想顛倒, 心倒, 見倒. (소이자하? 유상전도, 심도, 견도.) 무슨 까닭인가? 생각이 전도되면 마음이 뒤바뀌고 견해가 뒤바뀌기 때문이다.

以三倒故, 世間之人樂中見苦, 常見無常, 我見無我, 淨見不淨, 是名顛倒 (이삼도고, 세간지인락중견고, 상견무상, 아견무아, 정견부정, 시명전도) 세 가지가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며,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뒤바뀌었다고 이른다.

以顛倒故, 世間知字而不知義. (이전도고, 세간지자이부지의)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何等爲義? (하등위의?) 어떤 것들이 이치가 되는가?

無我者名爲生死, 我者名爲如來 (무아자명위생사, 아자명위여래) 내가 없다는 것은 생사가 되며, 나라는 것은 여래가 된다.

無常者聲聞, 緣覺, 常者如來法身 (무상자성문연각, 상자여래법신)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과 연각을 의미하며, 항상한 것은 여래의 법신을 의미한다.

苦者一切外道, 樂者卽是涅槃 (고자일체외도, 락자즉시열반) 괴로운 것은 모든 외도들이며, 즐거운 것은 열반을 의미한다.

不淨者卽有爲法, 淨者諸佛菩薩所有正法. (부정자즉유위법, 정자제불보살소유정법) 부정한 것은 유위법을 의미하며, 깨끗한 것은 부처와 보살이 가지는 바른 법이다.

是名不顛倒, 以不倒故, 知字知義. (시명부전도, 이불도고, 지자지의) 이것은 뒤바뀌지 않는 것이니, 뒤바뀌지 않으므로 글자도 알 수 있고, 의미도 알 수 있다.

若欲遠離四顛倒者, 應知如是常樂我淨 (약욕원리사전도자, 응지여시상락아정) 만약 네 가지 전도된 것을 떠나서 멀리하려면 마땅히 여래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열반경』에서는 얼핏 보아 정반대의 표현인 무상無常, 고타苦, 무아無我, 부정不淨과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중심으로 양자의 어법이 다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제법무아(諸法無我)에서 '아'는 실체로서의 '나'를 의미하며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초기불교의 인식은 이처럼 '무아' 즉, '공'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하지만 대승불교에 와서 나(我)란 것은 곧 부처란 뜻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교리 내에서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我'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거대한 지층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승에서 입자로서 '나'를 해체하고 실체로서 '나'를 부정하는데 주력했다면 대승에서 '나'는 이미 개별적 입자로서의 의미를 벗어난다. 우주와 '나'가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써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자적 인식에서 장으로 인식은 이미 달라진 것이다.

-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란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나라는 것은 여래라는 뜻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이란 뜻이 된다.

- 비판의 대상이 되는 비구는 여전히 낮은 차원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입자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무상을 주장한다.

- 변화하는 법계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

- 입자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고정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없기에 무아이다.
- 낮은 차원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취가 남아 있기에(유위법) 깨끗하지 못한다.
- 대립되는 두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열반'에 있다.
- 부처의 경지에서는 상/락/아/정 할 수 있지만 열반적정에 들지 못하면 무상/고/무아/부정 한 것이다.
- 엄밀히 말하면 차원에 따라, 세계인식에 따라 그 둘은 갈라진다.
-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 상락아정이라는 대승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3. 상락아정의 의미

別而言之(별이상지) 구별해서 그것을 말하면

常是法身之義(상시법신지의대피) 상은 법신의 뜻이니對彼完(色)身是無常故(대피색신시무상고) 저 색신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대하기 때문이다.

樂是涅槃之義(락시열반지의) 락은 열반의 뜻이니,

對彼生死是苦海故(대시생사시고해고) 저 생사가 고행이라는 것에 대치하기 때문이다.

我是佛義(아시불의) 아는 분다라는 뜻이니,

以對衆生不自故(이대중생불자고) 중생들이 자유자재하지 못한 것에 대치하기 때문이다.

淨是法義(정시법의) 정은 법이라는 뜻이니以對非法是染濁故(이대비법시염탁고) 법 아닌 것이 더럽고 혼탁하다는 것에 대치하기 때문이다.

如哀歎品云(여애환품운) (대반열반경의) 애탄품 제3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我者卽是佛義(아자즉시불의) 아는 곧 부처님이라는 뜻이며,
常者是法身義(상자시법신의) 상은 곧 법신이라는 뜻이고
樂者是涅槃義(락자시열반의) 낙은 곧 열반이라는 뜻이며,
淨者是法身義(정자시법신의) 정은 곧 법신이라는 뜻이며,
樂者是涅槃義(락자시열반의) 락은 곧 열반이라는 뜻이며
淨者是法義(정자시법의) 정은 곧 법이라는 뜻이다.

且約一邊(차약일변) 이는 한 측면에 의거하여
如是配當(여시배당) 이와 같이 배당하였지만
就實通論(취실통론) 실제로 공통적인 점을 취하여 논하면
無所不當(무소부당) (네 가지 덕이) 서로 해당하지 않는 데가 없다.

- 원효, <涅槃宗要>

- 원효는 수행을 통해 반전의 언어인 상락아정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 범부들은 유위의 세계를, 상락아정常樂我淨, 즉 항상 있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거기에 집착한다.
- 소승 수행자인 성문·연각은 유위의 세계는 무상無常하고, 고쁨이며, 무아無我이고, 부정不淨한 것이라고 범부의 세계인식을 비판한다.
- 위에서도 “내가 없는 것은 생사요,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연각이요, 괴로운 것은 모든 외도들이요, 부정하는 것은 함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하지만 범부와 소승 수행자는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다른 것이 있다면 범부는 보이는 세계를 실체라고 여겨 얽매이고 있다는 점이고, 성문·연각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환(幻)이라고 모두 부정한다는 점이다.
- 성문/연각은 궁극적으로 공적空寂한 상태에 이르러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범부와 지향점이 다르지만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공적인 상태’를 달리 설정한다는 점에서 실체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EX. ‘참나’는 누구인가?)
- 성문·연각이 수행의 궁극 목표를 회신멸지灰身滅智로 보는 것도 세계를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로 보기 때문에 범부의 집착을 소멸로 극복하려 한 것이다.

- 또한 이것이 성문·연각에 대한 소송, 즉 장교藏敎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 이처럼 유위, 즉 현실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전망은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의 세계관을 조성할 수 있다.
- 실제로 부정관不淨觀을 수행한 비구들 가운데 자신의 육신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어 자살하는 이들이 생겼고, 자살하기 어려웠던 비구들 가운데 바라문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여 죽은 비구가 60명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 『열반경』은 붓다가 타계하기 직전에 설한 내용을 수록한 경전이다. 만약 붓다를 따르는 수행자들이 세간의 논리, 즉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에서 본다면, 붓다의 입적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가르침을 의지할 데가 사라지고, 붓다의 높은 수행의 결과가 소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수행자들에게 붓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4. 상락아정의 조건

先男子 有名涅槃非大涅槃(선남자 유명열반비대열반) 선남자여, 열반이라 이름하고 대열반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云何涅槃非大涅槃? (운하열반비대열반?)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하고 대열반이라 이름하지 않는가.

不見佛性而斷煩惱, 是名涅槃非大涅槃. (불견불성이단번뇌, 시명열반비대열반) 불성을 보지 못하고 번뇌만 끊은 경우 이는 열반이라 하고 대열반이라 하지 않는다.

以不見佛性故, 無常, 無我, 唯有樂, 淨. (이불견불성고, 무상, 무아, 유유락, 정) 불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함이 없고, 나도 없으며, 오직 즐거움과 깨끗함만 있나니

以是義故, 雖斷煩惱, 不得名爲大般涅槃也. (이시이고, 수단번뇌, 부득명위대반열반야) 이런 까닭으로 오로지 번뇌를 끊었으나 대반열반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느니라.

若見佛性, 能斷煩惱, 是則名爲大般涅槃. (약견불성, 능단번뇌, 시즉명위대반열반) 만일 불성을 보고 번뇌를 끊을 수 있었으면 이는 곧 대반열반이라 이름 하나니

以見佛性故, 得名爲常樂我淨. (이견불성고, 득명위상락아정)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 하며

以是義故, 斷除煩惱亦得稱爲大般涅槃. (이시이고, 단제번뇌역득칭위대반열반) 이런 뜻으로 번뇌를 끊는 것 또한 대반열반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니라.

- 붓다는 불성을 보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열반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 불성은 부처의 성품, 부처의 본질이다. 불성은 세간의 존재 즉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로 만날 수 있는 부분적인 입자로서의 인격체의 개념이 아니다.
- 이것은 출세간의 상태로써 전체를 아우르는 장場으로서 인식의 차원이 높아졌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기에 번뇌를 끊더라도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즐거움과 깨끗함은 있되, 항상함과 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 하물며 이런 열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성문 · 연각에게는 상락아정常樂我淨 모두가 부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5. 열반의 의미

붓다는 열반의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풀이한다.

善男子 涅槃者, 言不; 槃者, 言滅. (선남자 열자 언불 ; 반자, 언멸) 선남자여, 열涅槃은 아니란[不] 말이요, 반槃은 멸한다[滅]는 말이니,

不滅之義, 名爲涅槃. (불멸지의, 명위열반) 멸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又言覆, 不覆之義, 乃名涅槃 ; (반우언복, 불복지의, 내명열반) 반은 또 덮는다[覆]는 뜻이니, 덮이지 않았다는 뜻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言去來, 不去不來, 乃名涅槃 ; (반언거래, 불거불래, 내명열반) 반은 또 간다 온다[去來]는 뜻이니,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者, 言取, 不取之義, 乃名涅槃 ; (반자, 언취, 불취지의, 내명열반) 반은 취取하는 뜻이니, 취하지 아니함[집착하지 않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言不定, 定無不定, 乃名涅槃 ; (반언부정, 정무부정, 내명열반) 반은 일정치 않다[不定]는 뜻이니 선정이 일정치 아니함이 없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言新故, 無新故義, 乃名涅槃 ; (반언신고, 무신고의, 내명열반) 반은 새 것과 낡은 것[新故]이란 말이니, 새 것과 낡은 것이 없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言障導, 無障礙義, 乃名涅槃. (반언장애, 무장애의, 내명열반) 반은 장애[障]란 말이니, 장애가 없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 '槃者, 名相, 無相之義, 乃名涅槃. (반자, 명상, 무상지의, 내명열반) ... 반은 모양[相]이란 뜻이니, 모양이 없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者, 言有, 無有之義, 乃名涅槃 ; (반자, 언유, 무유지의, 내명열반) 반은 있다[有]는 말이니, 있지 아니함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名和合, 無和合義, 乃名涅槃 ; (반명화합, 무화합의, 내명열반) 반은 화합을 말하는 것이니, 화합이 없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槃者, 言苦, 無苦之義, 乃名涅槃. (반자, 언고, 무고지의, 내명열반) 반은 괴롭다[苦]는 말이니, 괴로움이 없음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善男子 斷煩惱者, 不名涅槃, 不生煩惱, 乃名涅槃. (선남자 단번뇌자, 불명열반, 불생번뇌, 내명열반) 선남자여, 번뇌를 끊은 것은 열반이라 하지 않고 번뇌가 생기지 않음을 열반이라 하나니,

善男子 諸佛如來煩惱不起, 是名涅槃. (선남자 제불여래번뇌불기, 시명열반)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 여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所有智慧, 於法無碍, 是爲如來. (소유지혜, 어법무애, 시위여래) 가진 지혜가 법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을 여래라 하느니라.

如來非是凡夫, 聲聞, 緣覺, 菩薩, 是名佛性. (여래비시범부, 성문, 연각, 보살, 시명불성) 여래는 범부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아니니, 이름을 불성佛性이라 하느니라.

如來身心, 智慧遍滿無量無邊阿僧祇土, 無所障碍, 是名虛空. (여래신심, 지혜편만무량무변아승지토, 무소장애, 시명허공) 여래의 몸과 마음과 지혜가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하여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허공이라 하느니라.

如來常住, 無有變易, 名曰實相. (여래상주, 무유변이, 명왈실상) 여래가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하느니라.

- 『대반열반경』 23권

- 열반은 자유자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은 공을 설명하는 것이나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모순이 된다. 입자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이다.
- 열반은 멸하는 것이 아니고 덮이지 않은 것이며 가지도 오지도 않으며 장애가 없고 모양이 없으며 괴롭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유위의 입자 상태를 벗어나 전체적인 장場에 이름을 뜻한다.
- 여기서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이미 생긴 번뇌를 없앤다는 것이어서 인식들이 3차원 공간관의 입자중심의 유위의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들이 전체를 아우르는 장場的 세계관에 입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 그런 만큼 열반의 부처는 온 우주 어디에도 가득하여 장애가 없고 항상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의미의 열반은 바로 불성이고 그 불성은 중도中道이다.

6. 상락아정을 이용한 수련방법

善男子! 汝問云何爲佛性者, 諦聽! 諦聽! 吾當爲汝分別解說. (선남자! 여문운하위불성자, 제청! 제청! 오 당위여분별해설) 선남자여, 그대가 문기를 '어떤 것을 불성이라 하느냐' 하였으니, 아주 아주 자세히 들어라. 내가 당연히 그대를 위하여 나눠서 하나하나 해설하리라.

善男子! 佛性者, 名第一義空 ; 第一義空, 名爲智慧. (선남자! 불성자, 명제일의공 ; 제일의공, 명위지혜) 선남자여, 불성은 제일의공第一義空이라 하고, 제일의공은 지혜라 이름하느니라.

所言空者, 不見空與不空. (소언공자, 불견공여불공) 공이라 말하는 것은 공한 것과 더불어 공하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요,

智者 見空及與不空, 常與無常, 苦之與樂, 我與無我. (지자 견공급여불공, 상여무상, 고지여락, 아여무아) 지혜라 함은 공한 것이나 공하지 아니한 것과, 항상한 것이나 무상한 것과,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과, 나인 것이나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니라

空者, 一切生死 ; 不空者, 謂大涅槃 ; 乃至無我者, 卽是生死 ; 我者, 謂大涅槃.(공자, 일체생사 ; 불공자, 위대열반 ; 내지무아자, 즉시생사 ; 아자, 위대열반) 공이란 것은 온갖 생사요, 공하지 않다는 것은 대열반이며, 그리고 내가 없다는 것은 생사요, 나라는 것은 대열반이니라.

見一切空, 不見不空, 不名中道, 乃至見一切無我, 不見我者, 不名中道. (견일체공, 불견불공, 불명중도, 내지견일체무아, 불견아자, 불명중도) 온갖 공한 것만 보고 공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도中道라 이름할 수 없으며, 그리고 온갖 내가 없는 것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중도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中道者, 名爲佛性. (중도자, 명위불성) 중도란 것은 불성이라 이름하나니,

以是義故, 佛性常恒, 無有變易, 無明覆故, 令諸衆生不能得見. (이시이고, 불성상항, 무유변이, 무명복고, 영제복고, 영제중생불능득견) 이런 뜻으로 불성은 항상하여 변하지 아니하거니와, 무명에 덮이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느니라.

聲聞, 緣覺見一切空, 不見不空, 乃至見一切無我, 不見於我. (성문, 연각견일체공, 불견불공, 내지견일체무아, 불견어아) 성문과 연각은 모든 공한 것만 보고 공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하며, 내지 모든 내가 없는 것만 보고 나인 것은 보지 못하나니,

以是義故, 不得第一義空 ; 不得第一義空故, 不行中道 ; 無中道故, 不見佛性. (이시이고, 부득제일의공 ; 부득제일의공고, 불행중도 ; 무중도고, 불견불성) 이런 뜻으로 제일의공을 얻지 못하며, 제일의공을 얻지 못하므로 중도를 행하지 못하고, 중도가 없으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 불성은 지혜를 의미하며 그 지혜는 공한 것과 공하지 않은 것,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 나인 것과 나 아닌 것 모두를 보는 것이다.
- 불성을 중도中道라고 하는 것은 $1+0 = 1$ 에서 우변 1에서 좌변 1과 0을 동시에 본다는 의미이다.
- 성문과 연각은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에 근거하여 입자 중심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부분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불성은 장場 중심으로 세계를 봄으로써 전체적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불성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중도라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 볼 수 있게 된다.
- 수련을 할 때에도 상락아정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면 기운의 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장교에서는 세계를 무상無常, 고쁨, 무아無我, 부정不淨이라고 보던 것을 떠올리면 기운이 확장되기는 하지만 기운이 많이 늘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이런 상태에서 '대승에서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떠올리면 늘리던 기운은 사라지고 위, 아래, 등 뒤쪽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기운을 느낄 수 있다.
- 장교와 대승이라는 두 관점을 통해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같은 세계가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기장의 양상 또한 확연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 하지만 상락아정 역시 일상적 의식상태, 즉 3차원공간관의 세계관으로 떠올리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 관심석을 통해 노궁혈에 의념을 떠올리면서 상락아정을 일미동체의 세계관으로 떠올린다.
- 실수 입자의 경계가 아니라 허수의 장으로 떠올리고, 장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원교의 세계관으로 떠올리면서 기의 장을 느껴본다.
- 수련을 통해 충분히 이완하고 기의 균형을 이룰 때, 상락아정常樂我淨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데, 이때 무의식 중에도 작동하는 인식틀을 주목한다. 인식틀을 허수장으로 명시하고, 장교가 아니라 원교로 의념을 설정해야만 한다. 그 상태에서만이 상락아정은 의미를 갖는다.
- 상락아정을 떠올리면서 두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기장을 느껴본다. 장교를 바탕으로 떠올릴 때 느껴졌던 상락아정의 기운을 체크해 본다. 또 원교를 바탕으로 상락아정을 떠올리면서 두 기운을 비교해 본다.
- 가장 경계가 강하고 대립적인 상태였던 상락아정이, 원교로 보면 모든 상대적인 대립을 뛰어넘고 모든 경계가 해체된 일미동체의 세계로 확장된다.
- 상/락/아/정을 하나씩 떠올려보다가 '상락아정'을 동시에 떠올리면 횡수로 일체의 경계 없이 열린다. 다시, '대승의 상락아정'이라고 떠올리면 온 우주법계의 법성의 상태와 같이 경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법성자천이연'의 상태가 된다.